

기획예산처, 세종청사 5동 시대 개막

-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 비전 아래 '국민 서약식' 개최
- 제5차 확대간부회의, 직원 격려 및 5월 주요 현안 점검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 초청 장관실 오픈하우스 행사

【 기획예산처 개청식 및 국민 서약식 】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5월 11일(월),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입주를 기념하는 '기획예산처 개청식 및 국민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9시 30분부터 진행된 행사에서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새로운 미래, 든든한 재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문구가 각인된 동판에 핸드프린팅을 하며, 국가 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다짐하는 ‘국민 서약식’을 하였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분산된 근무여건에서 벗어나 같은 공간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결집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조직인가’하는 실적과 성과로 국민들께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획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 산업 대전환, 지역 격차, 기후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정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이를 통하여 예산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운용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가 ①미래를 설계하되 실행력을 갖춘 조직, ②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는 조직, ③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박홍근 장관은 각 실·국 사무실을 순회하여 직원들에게 이사떡을 전달하고,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안 대응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제5차 확대간부회의 】

개청식 행사 직후 오전 11시부터는 기획예산처 4층 대회의실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5차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되었다.

먼저 박홍근 장관은 사무공간이 여러 곳으로 분리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자 맡은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울러 “금일 청사 입주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조직의 진정한 출발점인 만큼 기획처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월중 예정된 기획처의 주요 현안도 점검하였다. 장관은 5월 중순 완료되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중심축인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 지출구조조정 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5월말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착수하게 됨을 언급하면서 “자율과 책임의 재정운용 원칙이 잘 구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4월말 나라살림 타운홀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 중인 ‘청년 LiveTalk’ 대국민 행사는 “중장기 전략의 주역인 미래세대와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더욱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스마트한 AI 기반 근무환경을 선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금일 오후 진행되는 기획처 AI 역량강화 교육에 박홍근 장관도 출선수범하여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 밝히며, 간부진과 직원들의 참여도 독려하였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업무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간부진의 배려를 요청하였다. 특히 금일 오후 예정된 장관실 오픈하우스 행사 시에도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활용 등을 적극 장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획처 핵심아젠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 유지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장관실 오픈하우스 행사 】

한편, 오후 4시부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들을 일터로 초청하는 ‘장관실 오픈하우스’ 행사가 이어졌다. 참석한 자녀들에게는 ‘명예공무원증’이 수여되었으며, 장관실에서 미래의 장관이 되어 보고, 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직원 가족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개청식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의미를 넘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향한 국가 백년대계의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는 부처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동선 (044-214-1280)
		담당자	팀 장	오두현 (044-214-1310)
		담당자	사무관	지혜조 (jeje43@korea.kr)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류승수 (044-214-1410)
		담당자	사무관	김나현 (nahyun5959@korea.kr)

